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산업생산지수 1월 저점 이후 4월 조정기간을 거친 뒤 마이너스 성장폭 개선됨 - 6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85.7로 전년동월대비 6.2%로 감소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4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세 -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5.4%, 대형마트 2.3%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0% 증가 - 백화점의 경우 가전, 컴퓨터, 신발, 화장품의 판매호조로 5.4% 증가,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사업체수 증가와 음식료품, 생활용품 등의 판매호조로 2.3% 증가 ○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증가로 전도시 평균과 보합 - 7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6로 전월대비 0.4% 증가, 전도시 평균(0.4%)과 보합, 세부항목별로는 식료품, 주거, 교통 부문등에서 상승 -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0.4%, 1.7% 각각 상승하여 5,6월의 상승폭에 비해 다소 높은 상승폭을 나타냄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1.3%로 전국대비 0.4%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7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한 61.3%로 나타남 ○ 7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청년층 취업자 전국대비 1.4%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7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10천명(-2.2%) 감소한 4,862천명인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73천명(-2.5%), 여자는 38천명(-1.8%)이 각각 감소 - 서울시 청년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4.1% 감소 - 55-59세의 고령층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지난달에 비해 다소 하락 ○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한 4.8%, 전국대비 1.1%p 높음 - 7월 서울의 실업률은 4.8%로, 남자는 5.0%, 여자는 3.7%인 것으로 나타남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6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795십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1% 감소 - 공공부문에서는 전년대비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사무실 및 학교, 기타 건축공사 증가로 146.5% 증가, 민간부문에서 전년대비 신규주택 및 공장 건설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16.3% 감소 ○ 7월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폭 확대 - 강남지역(0.8%)은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상승세가 전역으로 확산되며 전월(0.5%)에 비해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강북지역(0.5%)도 전월(0.3%)에 이어 상승 폭이 확대 ○ 7월 강남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확대 - 강남지역(0.9%)은 강서구(2.0%)가 물량 부족현상이 심화되며 상승세가 확대되었고 강북지역(0.5%)에서는 광진구(1.5%), 노원구(0.8%)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상승 폭이 크게 확대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6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2조 8,434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0.08% 증가 ○ 6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019개로 전년동월대비 41.6%(593개) 증가 ○ 6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51개로 전년동월대비 19.0%(12개) 감소 ○ 7월 서울의 수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7월 서울의 수출은 30.9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0.3% 증가. 수출 1순위는 편직물,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합성수지 등의 순 - 7월 서울의 수입은 65.8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1.2% 감소. 수입 1순위는 반도체로 나타났고 다음은 컴퓨터,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석유제품 등의 순

| 생 · 산 |

6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지속

■ 전국의 6월 광공업 생산,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유지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5.7% 증가, 전년 동월대비로는 1.2% 감소, 부문별로는 반도체 및 부품, 기타운송장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월대비 1.7% 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의 호조로 2.6%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

■ 서울의 6월 산업생산지수 -6.2%로 감소세 지속

- 6월 중 서울시 산업생산지수는 85.7(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6.2% 감소, 전월대비 4.1% 증가
- 업종별로는 섬유제품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의복 및 모피, 전기장비, 인쇄 및 기록매체 등에서는 감소
- 지난달(-17.7%)에 비해 다소 회복되는 모습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경공업부문 마이너스 성장세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0.0% 로 지난달(-24.0%)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9% 로 5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냄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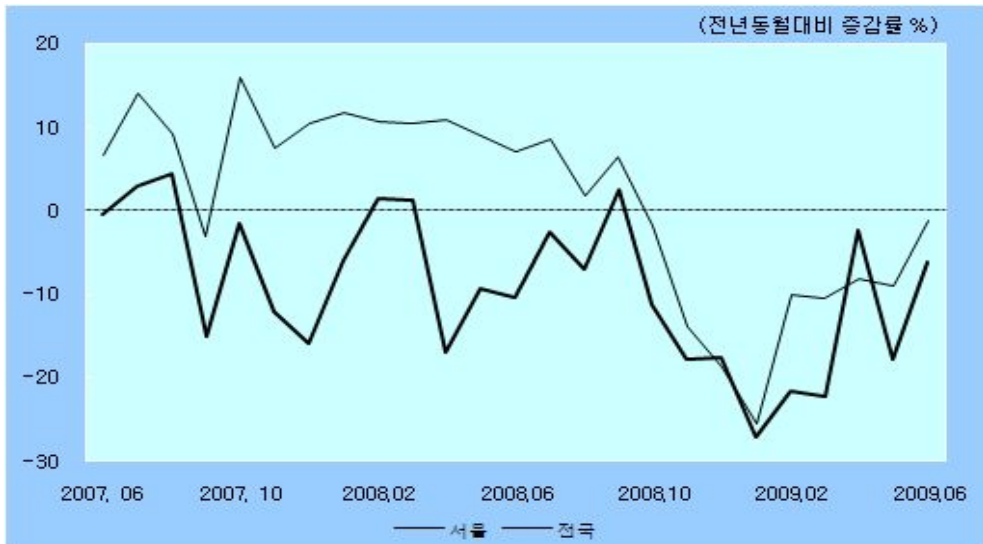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6월	2월	3월	4월	5월p	6월p	
전 년 동 월 대 비	전국	7.0 (-0.1)	-10.0 (7.1)	-10.5 (4.9)	-8.2 (2.6)	-9.0 (1.5)	-1.2 (5.7)
	서울 (제조업)	-10.5 (-8.7)	-21.7 (-3.9)	-22.2 (10.2)	-2.3 (12.5)	-17.7 (-16.1)	-6.2 (4.1)
	중공업	-18.8 (-8.4)	-46.3 (0.0)	-41.0 (13.4)	9.8 (46.5)	-24.0 (-23.8)	-10.0 (8.4)
	경공업	-4.4 (-8.7)	-3.5 (-5.4)	-9.8 (8.8)	-9.0 (-2.2)	-13.8 (-11.1)	-3.9 (1.7)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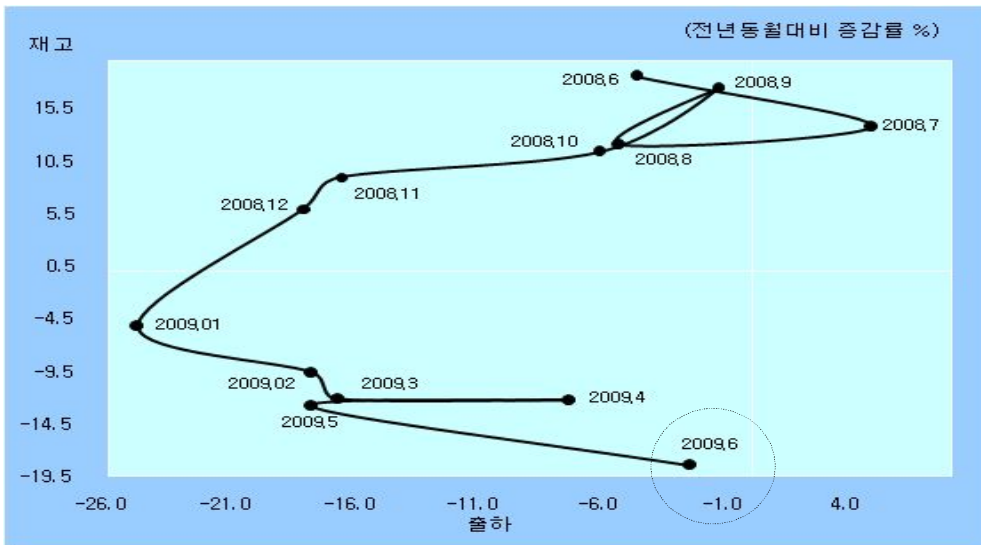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6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감소 단계

- 서울의 6월 중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38.5로 전년동월대비 17.2% 감소
 - 업종별로는 섬유제품, 식료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감소, 재고율은 139.2로 전월대비 25.6%p 감소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94.6(200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2.3% 감소,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전기장비 등에서 감소
 - 출하 및 재고 각각 감소하여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 · 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 · 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중공업, 경공업 부문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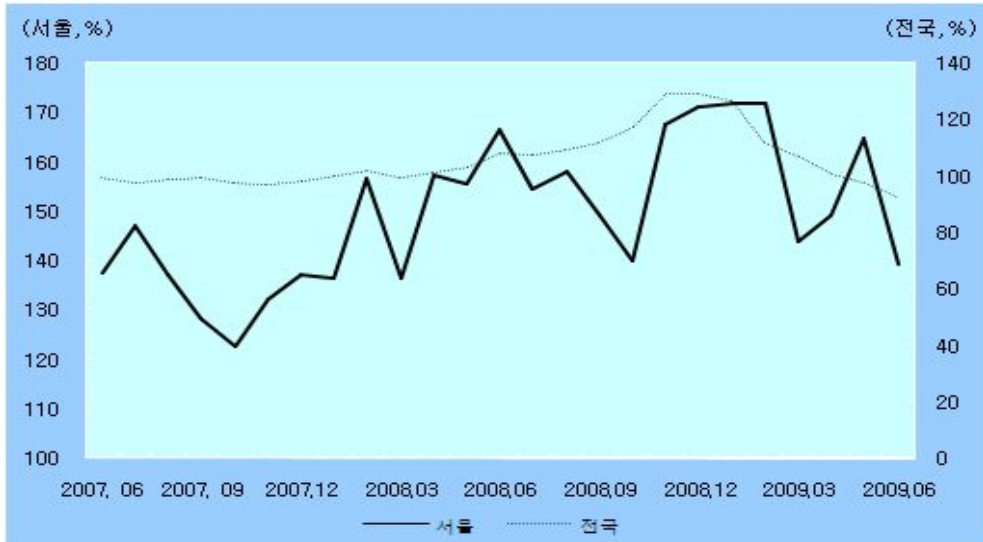
- 6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2.5%로 전월대비 4.9%p 감소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39.2%로 전월대비 25.6%p 감소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54.3%p 감소한 103.3%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6.5%p 감소한 159.4%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단위: %)

구분	구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6월	2월	3월	4월	5월p	6월p	
재고율	전국	108.3	112.1	106.8	100.7	97.4	92.5	-4.9
	서울	166.5	171.8	143.8	149.1	164.8	139.2	-25.6
	중공업	155.1	183.2	126.5	145.0	157.5	103.3	-54.3
	경공업	172.5	161.6	147.0	147.8	165.9	159.4	-6.5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6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4개월 연속 증가세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 전국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월대비 4.2% 증가함
 - 백화점의 경우 전월대비 5.4% 증가, 대형마트의 경우 0.5% 감소
 - 유형별로는 내구재 21.3%, 준내구재 -2.0%, 비내구재 3.8%로 나타났으며, 업태별로는 전문 상품소매점 11.8%, 무점포판매 9.0%, 백화점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부문별 모두 증가, 전국대비 33.5%의 구성비를 보임
 -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3,645억으로 전년동월대비 4.0%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33.5%의 구성비를 보임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5.4%, 대형마트 2.3%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0% 증가, 전월대비 백화점 9.9%, 대형마트 9.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9.7% 감소
 -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가전, 컴퓨터, 신발, 가방, 음식료품, 화장품 등의 판매호조로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사업체수 증가(전년 60개 → 금년 66개)로 음식료품, 운동오락용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판매호조로 2.3% 증가한 것으로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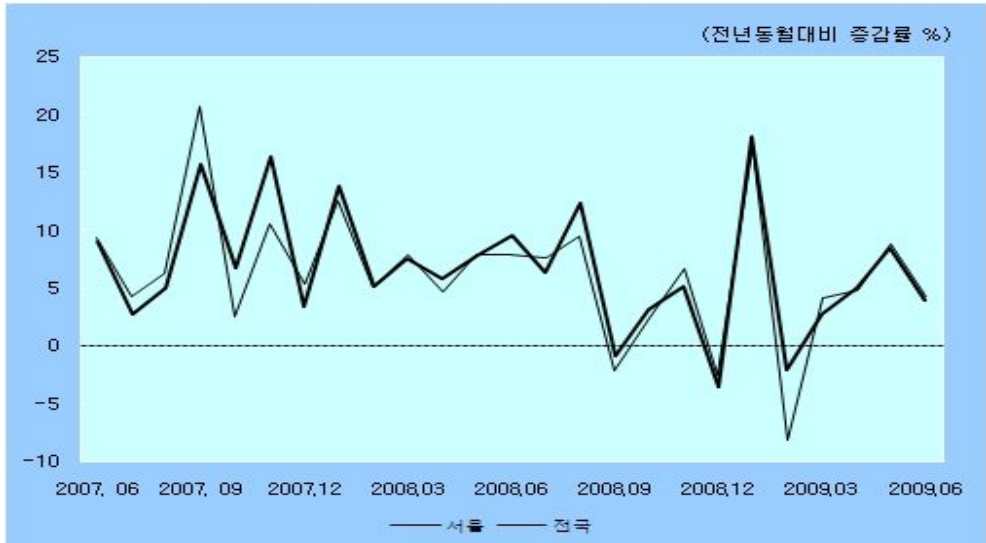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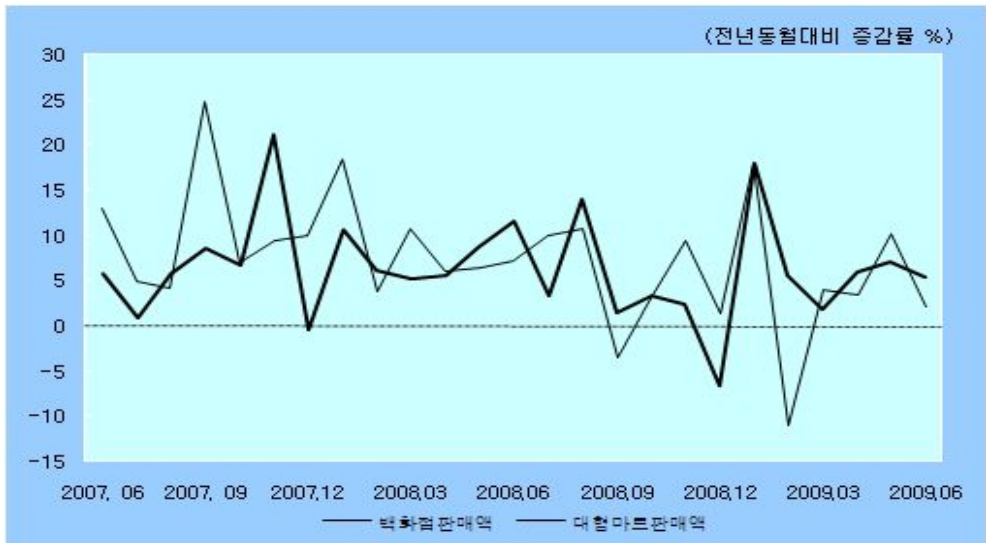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6월	2월	3월	4월	5월p	6월p
판매액	전국	3911.4 (7.9)	3754.6 (-8.2)	4296.4 (4.1)	4158.0 (4.8)	4543.5 (8.8)	4077.6 (4.2)
	서울	1311.7 (9.6)	1273.4 (-2.1)	1404.2 (2.8)	1422.6 (5.0)	1510.7 (8.5)	1364.5 (4.0)
	백화점	731.1 (11.6)	739.9 (5.5)	791.9 (1.8)	841.0 (6.0)	855.4 (7.1)	770.7 (5.4)
	대형마트 (할인점)	580.5 (7.2)	533.5 (-10.9)	612.2 (4.1)	581.5 (3.6)	655.3 (10.3)	593.8 (2.3)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7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4% 상승

- 전국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4% 상승으로 플러스 성장세로 반등
 -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0로 전월대비 0.4%로 상승하여 전월(0.1%) 이후 다시 상승, 전년동월대비로는 1.6% 상승하여 2월(4.1%)이후 상승률 5개월째 감소
 - 생활물가지수 부문은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0.4%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5%, 전년동월대비 8.4%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16개 시도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16개 시도 모두 전월대비 0.3%~0.5% 상승하였음

- 서울의 7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4%로 전도시 평균과 보합
 - 7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6으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3% 각각 상승
 - 7개 도시별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전월에 비해 서울, 대구, 인천, 대전은 전도시 평균(0.4%)과 같이 상승하였고, 부산, 광주, 울산은 전도시 평균보다 높게 상승
 - 상품은 전월대비 0.5%(전국:0.5%), 전년동월대비 2.2%(전국:0.9%) 각각 상승, 부문별로 농축수산물물은 전월대비 1.3%,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3% 각각 상승
 - 서비스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3% 각각 상승, 부문별로 집세는 0.1%, 공공서비스 부문은 0.8%, 개인서비스 부문은 0.2% 각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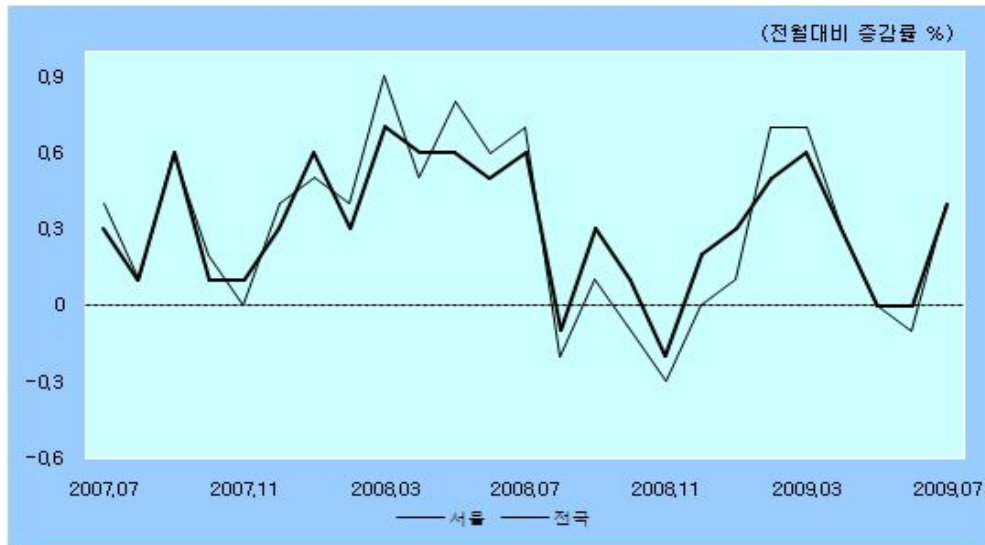
- 서울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각각 0.4%, 1.7% 상승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전국:0.4%), 전년동월대비 1.3%(전국:0.4%)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7%(전국:1.5%), 전년동월대비 8.8%(전국:8.4%) 각각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비	전국	0.7 (5.9)	0.7 (4.1)	0.7 (3.9)	0.3 (3.6)	0.0 (2.7)	-0.1 (2.0)	0.4 (1.6)	
	서울	0.6 (5.0)	0.5 (3.9)	0.6 (3.9)	0.3 (3.7)	0.0 (3.0)	0.0 (2.6)	0.4 (2.3)	
	상품 성질별	상품	1.4 (8.0)	1.2 (5.6)	1.1 (6.5)	0.4 (6.1)	-0.1 (4.4)	-0.4 (3.0)	0.5 (2.2)
		서비스	0.3 (3.5)	0.2 (3.2)	0.4 (2.6)	0.2 (2.5)	0.0 (2.3)	0.2 (2.2)	0.4 (2.3)
	생활물가	0.6 (5.7)	0.5 (3.2)	0.9 (3.2)	0.7 (3.3)	-0.2 (2.4)	-0.3 (1.5)	0.4 (1.3)	
	신선식품	3.5 (-7.5)	1.6 (2.1)	3.2 (10.2)	3.6 (15.4)	-1.8 (14.4)	-8.5 (10.7)	1.7 (8.8)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7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세 지속

- 전국의 7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전국 7월 15세 이상인구는 40,12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3천명(1.3%)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4,75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천명(0.3%) 증가
 - 성별로 남자는 14,494천명으로 112천명(0.8%)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261천명으로 29천명(-0.3%)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하였음
- 서울의 7월 경제활동참가율 61.3%로 전국대비 0.4%p 낮음
 - 7월 15세이상인구는 8,32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9천명(0.8%)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5,10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천명(-1.2%)이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22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9천명(4.2%)이 증가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0.5 (-0.2)	-0.2 (-0.2)	-0.2 (1.7)	-0.2 (1.6)	-0.1 (0.8)	0.8 (1.1)	0.3 (-0.7)
	서울	-0.3 (0.2)	-2.0 (-1.3)	-1.5 (1.6)	-1.2 (0.3)	-1.3 (0.2)	-0.7 (0.6)	-1.2 (-0.3)
	남자	-0.4 (0.6)	-1.2 (-0.9)	-0.8 (1.3)	-0.9 (0.1)	-0.9 (0.7)	0.0 (0.5)	-1.0 (-0.4)
	여자	-0.2 (-0.3)	-3.1 (-1.7)	-2.4 (2.2)	-1.6 (0.6)	-1.8 (-0.6)	-1.6 (0.7)	-1.4 (-0.2)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2.3	59.3	60.2	61.2	61.6	62.2	61.7
	서울	62.6	60.1	61.1	61.2	61.3	61.6	61.3
	남자	74.5	71.8	72.7	72.7	73.2	73.5	73.1
	여자	51.3	49.1	50.1	50.4	50.0	50.3	50.2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취·업·자 |

7월 서울의 취업자 수 마이너스 성장세

- 전국의 7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남성보다 여성 취업자를 중심으로 감소
 - 7월 취업자는 23,82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6천명(-0.3%)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87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0.0%) 감소하였고, 여자는 9,952천명으로 73천명(-0.7%) 감소하여 남성보다 여성층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였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로 꾸준히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하고 있는 반면,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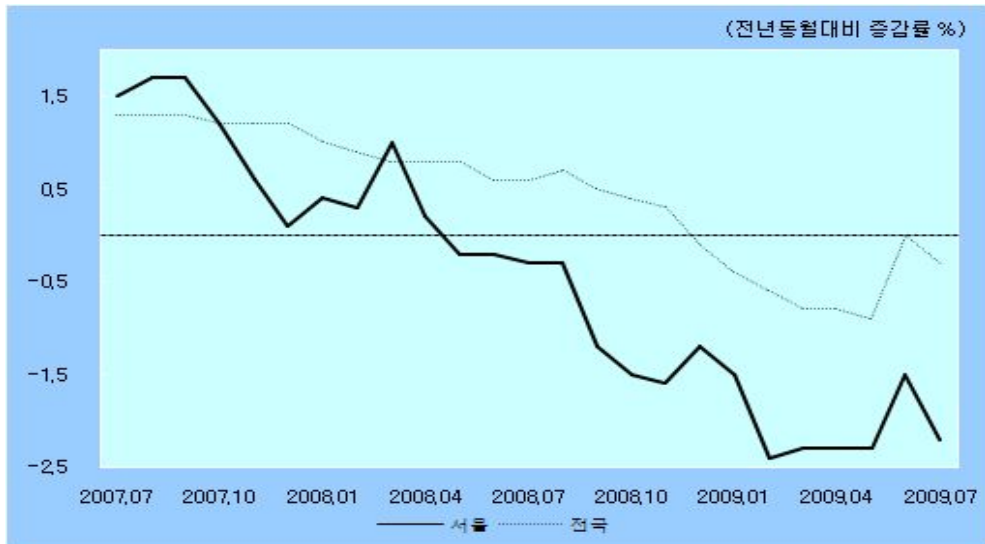
- 서울의 7월 청년층 취업자 수 전국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7월 취업자는 4,86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0천명(-2.2%)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94천명, 여자는 2,06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73천명(-2.5%), 여자는 38천명(-1.8%)이 각각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1천명(16.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15천명(6.4%), 전가운수·통신·금융업 1천명(0.1%)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건설업 78천명(-18.1%), 제조업 100천명(-16.4%), 도소매·음식숙박업 50천명(-3.6%)은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1%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2.7%) 1.4%p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5-59세의 고령층 취업자는(4.2%)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2.9%)는 지난달에 비해 다소 하락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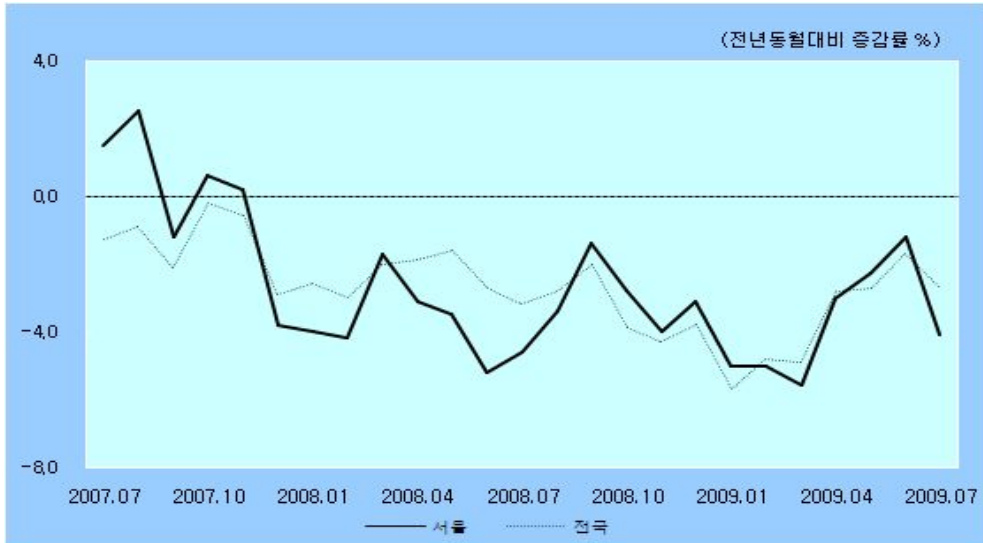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취업자	전국	0.6 (-0.2)	-0.6 (-0.5)	-0.8 (1.6)	-0.8 (1.8)	-0.9 (0.8)	0.0 (1.0)	-0.3 (-0.6)
	서울	-0.3 (0.2)	-2.4 (-2.0)	-2.3 (1.6)	-2.3 (0.3)	-2.3 (0.4)	-1.5 (0.7)	-2.2 (-0.6)
	남자	-0.1 (0.4)	-2.2 (-1.7)	-2.6 (1.1)	-2.4 (0.4)	-2.2 (1.3)	-1.4 (0.4)	-2.5 (-0.7)
	여자	-0.6 (-0.1)	-2.8 (-2.3)	-1.9 (2.3)	-2.2 (0.1)	-2.5 (-0.7)	-1.6 (1.2)	-1.8 (-0.3)
청년층 취업자	전국	-3.2 (2.3)	-4.8 (-1.6)	-4.9 (-1.3)	-2.8 (3.0)	-2.7 (1.6)	-1.7 (-0.2)	-2.7 (1.4)
	서울	-4.6 (2.3)	-5.0 (-3.2)	-5.6 (-0.2)	-3.0 (3.8)	-2.3 (2.1)	-1.2 (-0.9)	-4.1 (-0.7)
고령층 취업자	전국	1.8 (-0.9)	1.6 (0.7)	2.1 (7.5)	8.6 (4.6)	1.0 (2.0)	4.4 (3.2)	3.7 (-1.6)
	서울	-0.9 (0.0)	0.4 (-1.4)	1.8 (5.2)	-1.9 (0.5)	-1.7 (-0.3)	4.8 (4.3)	3.5 (-1.3)
	55-59세	4.1 (-1.8)	3.4 (-0.6)	6.6 (5.1)	6.3 (0.6)	1.7 (-1.4)	3.2 (0.9)	4.2 (-0.8)
	60세 이상	-4.6 (1.5)	-2.1 (-2.1)	-2.2 (5.4)	-1.7 (0.5)	-4.6 (0.8)	6.2 (7.3)	2.9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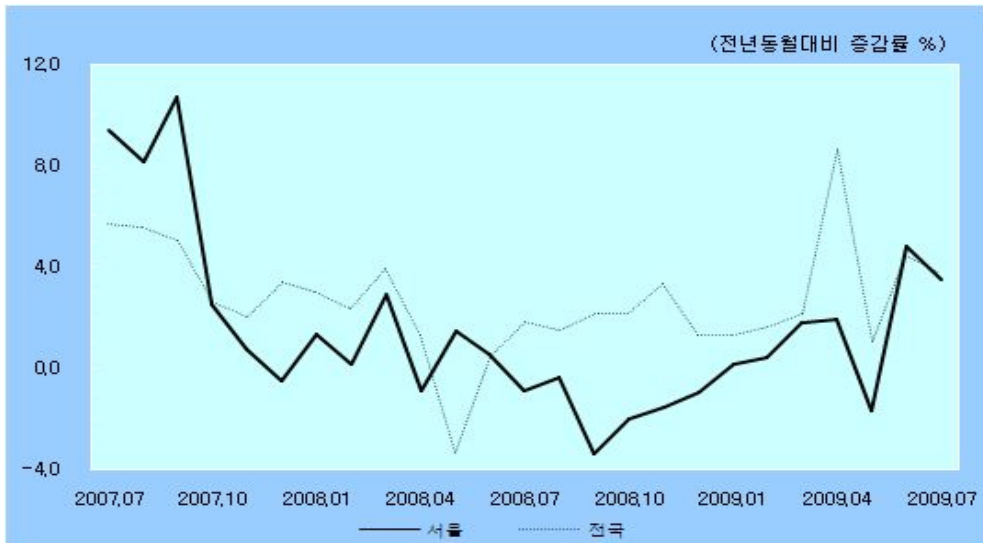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사무종사자, 전문·기술·행정관리자는 증가, 서비스 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감소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29천명(3.5%),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1천명(2.2%)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22.0%),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35천명(-9.6%), 서비스·판매종사자 34천명(-2.6%)은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각각 2.2% 감소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224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63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27천명(-2.2%), 임금근로자는 83천명(-2.2%)이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6천명(-0.6%), 무급가족종사자는 22천명(-11.5%)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83천명(4.3%)이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 59천명(-4.8%), 일용근로자 108천명(-19.0%)은 각각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 54시간 이상 취업자 각각 5.0%, 8.8% 감소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5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6천명(21.5%)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12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9천명(-5.0%)이 감소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7천명(8.0%)이 증가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도 100천명(29.8%)이 증가
 - 36시간 이상 취업자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4천명(-3.0%)이 감소하였고, 54시간이상 취업자도 135천명(-8.8%)이 감소
 - 일시휴직자는 7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9.2%)이 감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5.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0시간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산업별	제조업	-7.7 (-2.2)	-14.4 (-5.8)	-12.0 (11.6)	-20.3 (-9.0)	-15.5 (4.5)	-17.2 (-4.8)	-16.4 (-1.2)
	SOC 및 기타서비스업	0.8 (0.6)	-0.7 (-1.5)	-0.8 (0.4)	0.4 (1.6)	-0.3 (-0.1)	0.8 (1.4)	-0.3 (-0.5)
	사업·개인·공공서비스	-0.5 (-0.2)	5.3 (0.8)	3.8 (-0.5)	5.1 (2.5)	4.7 (0.4)	6.6 (2.9)	6.4 (-0.3)
	도소매·음식숙박	2.2 (2.7)	-3.3 (-1.5)	-3.4 (0.4)	-1.6 (0.3)	-2.0 (-0.8)	-1.0 (1.1)	-3.6 (0.0)
	전기·운수·통신·금융	1.2 (-2.4)	-2.0 (-3.4)	-2.1 (-0.8)	1.6 (3.3)	-0.2 (0.6)	-1.5 (-0.3)	0.1 (-0.7)
	건설업	1.3 (2.2)	-14.8 (-8.1)	-9.4 (6.9)	-14.1 (-1.7)	-15.8 (-1.2)	-13.6 (-1.4)	-18.1 (-3.1)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5.2 (1.4)	1.7 (1.2)	-1.2 (-1.5)	2.0 (2.4)	0.3 (-0.9)	3.0 (2.1)	2.2 (0.5)
	기능·기계작·조립·단종사자	-6.3 (-1.1)	-10.3 (-5.1)	-5.6 (6.5)	-11.4 (-3.4)	-9.7 (2.8)	-8.6 (0.1)	-9.6 (-2.2)
	서비스·판매종사자	1.2 (1.3)	-2.3 (-2.8)	-4.6 (0.3)	-1.9 (-0.2)	-1.7 (0.0)	-0.9 (0.8)	-2.6 (-0.4)
	사무종사자	-1.0 (-1.2)	3.7 (-1.2)	5.0 (1.6)	5.4 (3.2)	5.2 (0.0)	2.4 (-0.9)	3.5 (-0.2)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0.9 (0.5)	-1.1 (-2.4)	-0.1 (1.9)	-1.5 (0.1)	-2.7 (-0.1)	-1.0 (1.2)	-2.2 (-0.7)
	비임금근로자	-3.7 (-0.7)	-6.1 (-0.7)	-8.5 (0.8)	-4.9 (1.0)	-1.1 (2.0)	-2.8 (-0.6)	-2.2 (-0.1)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실·업·률 |

7월 서울의 실업률 4.8%로, 전국대비 1.1%p 높음

- **전국의 연령계층별 실업률 모든 계층에서 상승**
 - 전국의 7월 실업자는 92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9천명(20.6%)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1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5천명(22.8%) 증가하였고, 여자는 30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천명(16.4%) 증가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3%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여자는 3.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으며, 실업률 또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

- **서울의 실업률 4.8%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 전국(3.7%)대비 1.1%p 높음**
 - 7월 실업자는 24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천명(25.8%)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천명(35.7%), 여자는 80천명으로 7천명(9.3%)이 각각 증가
 - 실업률은 4.8%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6%로 전년동월대비 1.5%p, 여자는 3.7%로 0.3%p 각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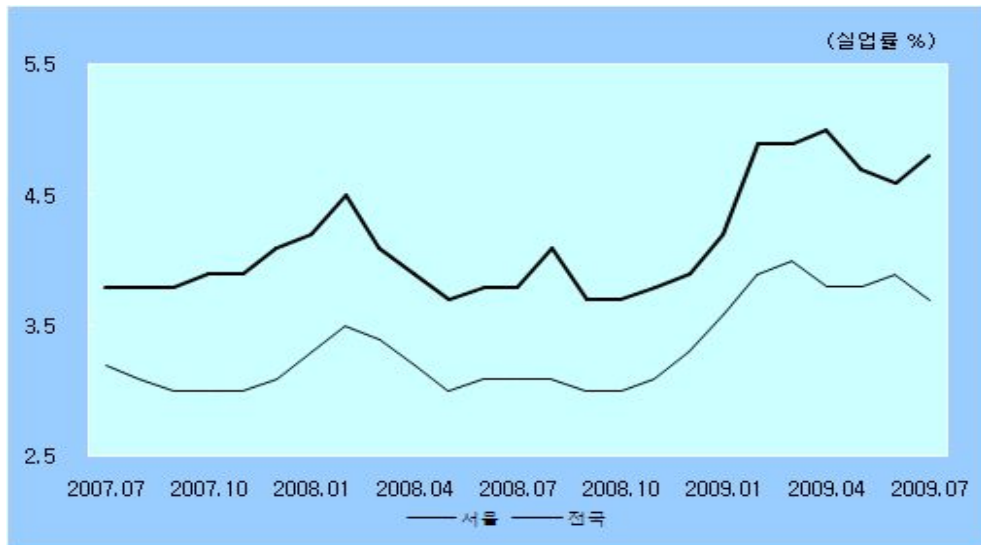
- **서울의 고용률 58.4%로 전국의 고용률(59.4%)보다 1.0%p 낮은 수준**
 - 전국의 7월 고용률은 59.4%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 성별로 보면 남자는 1.1%p, 여자는 0.9%p 각각 하락하였으며,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7월 고용률은 58.4%로 전년동월대비 1.8%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0%로 전년동월대비 2.4%p, 여자는 48.3%로 1.3%p 각각 하락
 -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9.4%)에 비해 1.0%p 낮은 수준임

〈표〉 실업 및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실업률	전국	3.1	3.9	4.0	3.8	3.8	3.9	3.7	
	서울	3.8	4.9	4.9	5.0	4.7	4.6	4.8	
	성별	남자	4.1	5.9	6.1	5.8	5.2	5.3	5.6
		여자	3.4	3.5	3.4	3.9	4.0	3.6	3.7
고용률	전국	60.3	57.0	57.9	58.8	59.3	59.8	59.4	
	서울	60.2	57.2	58.0	58.2	58.4	58.7	58.4	
	성별	남자	71.4	67.5	68.2	68.5	69.4	69.6	69.0
		여자	49.6	47.3	48.4	48.4	48.0	48.5	48.3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2009년 6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6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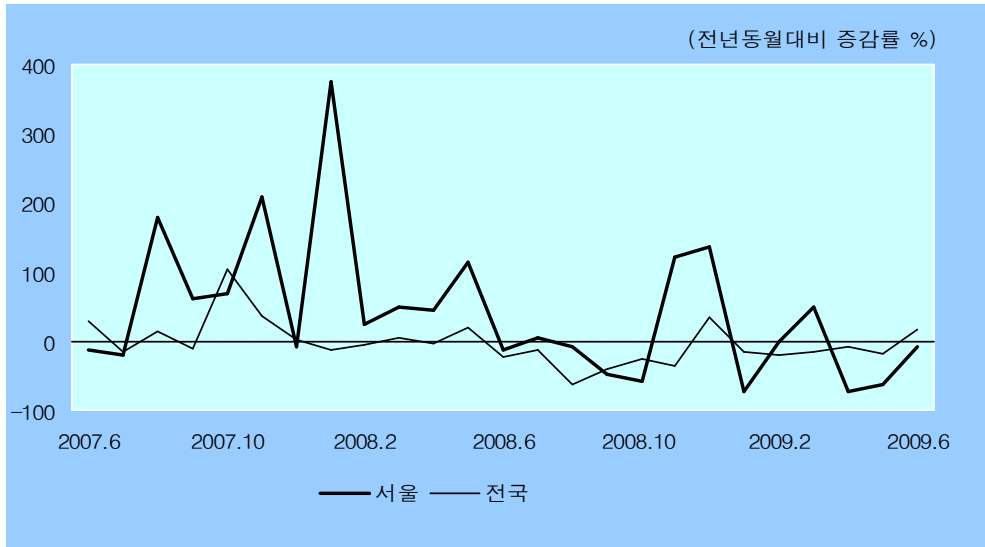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11조 2,47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9% 증가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7,94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1%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6.0%를 차지
- 공공부문에서 전년대비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사무실 및 학교, 기타 건축공사 증가로 146.5% 증가
- 민간부문에서 전년대비 신규주택 및 공장 건설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16.3%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 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국	9,537	4,879	7,354	7,249	6,988	11,247	17.9	60.9	
서울	1,933	1,086	1,716	411	1,024	1,795	-7.1	75.3	
발주 자별	공공	80	195	502	149	147	197	146.5	34.0
	민간	1,849	827	1,183	191	872	1,547	-16.3	77.4
공종 별	건축	1,897	954	1,635	243	978	1,665	-12.2	70.2
	토목	27	130	78	165	46	129	375.8	180.4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7월 서울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폭 확대

■ 7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폭 확대

- 7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과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0.3% 상승하며 전월대비 상승 폭이 확대
- 수도권(0.4%)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광역시(0.1%)가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인 반면 기타지방은 전월 0.1%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

■ 7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폭 확대

- 서울 강남지역(0.8%)은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상승세가 금천구를 제외한 전역으로 확산되며 전월(0.5%)에 비해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강북지역(0.5%)도 전월(0.3%)에 이어 상승폭이 확대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7월	6월	7월		
전국	100.8	99.4	99.7	-1.1	0.3
서울	101.5	99.7	100.4	-1.1	0.7
아파트	102.8	99.7	100.6	-2.2	0.9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100.7	99.4	99.8	-0.9	0.5
강남	102.3	100.1	100.9	-1.3	0.8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 확대

- 강북지역(0.5%)에서는 노원구(1.3%)가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 및 성북역민자역사 개발 등 호재로 매수문의가 증가하며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광진구(1.0%)는 한강변 개발 호재 및 역세권 재건축 예정지 연립주택 수요 증가로 크게 상승함
- 그리고 도봉구(0.8%)도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 등 호재로 상승 폭이 확대되고, 마포구(0.7%)는 상암동 초고층 라이트 빌딩 착공 기대감 및 경의선 개통(7/1)으로 상승세를 이어감

■ 강남지역 전월대비 상승 폭 확대

- 강남지역(0.8%)에서는 서초구(1.5%)가 한강 르네상스 개발 호재와 재건축 설문 추진이 맞물리면서 기대감 증가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강동구(1.3%)는 안전진단 통과 등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
- 강남구(1.3%)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매수문의 증가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상승 폭이 확대되었고, 송파구(1.1%)도 한강변 개발 호재 및 재건축 기대감, 소형아파트 물량 부족으로 상승 폭이 확대

■ 7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7월 31일 기준)은 1,804.52만원으로 전월(1,777.15만원) 대비 큰 폭 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331만원), 서초구(2,698만원), 용산구(2,547만원), 송파구(2,462만원), 양천구(1,960만원), 강동구(1,832만원), 광진구(1,812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17만원), 중랑구(1,116만원), 강북구(1,119만원), 도봉구(1,147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7월 강남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확대

■ 7월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강세 지속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방학이사철을 맞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월대비 0.3% 상승하며 전세가격 강세가 지속
- 수도권(0.5%)의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였고 광역시(0.2%)도 상승세가 확대된 반면 기타 지방(0.1%)은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보임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5%, 단독주택이 0.1%, 연립주택이 0.2% 상승하며 모든 유형에서 전월에 비해 상승 폭이 확대된 가운데 아파트의 상대적인 강세가 두드러짐
- 주택 규모별 전세가격은 대형이 0.4%, 중형이 0.5%, 소형이 0.3% 상승하며 전 규모에 걸쳐 상승 폭이 확대됨

■ 7월 서울 강남지역 전세가격 강세 지속

- 강북지역(0.5%)에서는 광진구(1.5%)가 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이주수요 및 방학 이사 수요 증가에 따른 물량부족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노원구(0.8%)는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가격 동반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방학 이사 수요 증가로 상승 폭이 크게 확대
- 강남지역(0.9%)에서는 강서구(2.0%)가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화곡3주구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로 물량 부족현상이 심화되며 상승세가 확대

■ 주요 상승지역은 강서구, 광진구, 송파구, 서초구

- 강북지역에서는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광진구(1.5%), 노원구(0.8%), 도봉구(0.7%), 성북구(0.7%) 등 지역이 크게 상승하였고, 강북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 지역은 보합세를 나타냄
- 강남지역에서는 강서구(2.0%), 송파구(1.3%), 서초구(1.2%), 강남구(1.0%) 등 지역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유일하게 금천구(-0.1%)는 하락세를 나타내었음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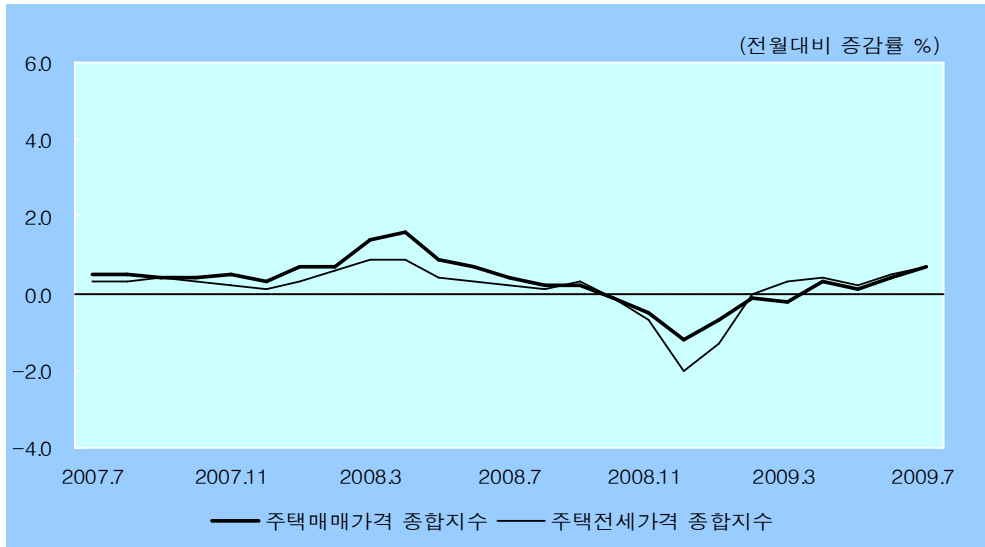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7월	6월	7월		
전국	100.8	99.6	99.9	-0.9	0.3
서울	102.5	100.2	100.9	-1.5	0.7
아파트	103.9	100.9	101.8	-2.0	0.9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1.4	99.4	99.9	-1.5	0.5
강남	103.5	101.1	102.0	-1.5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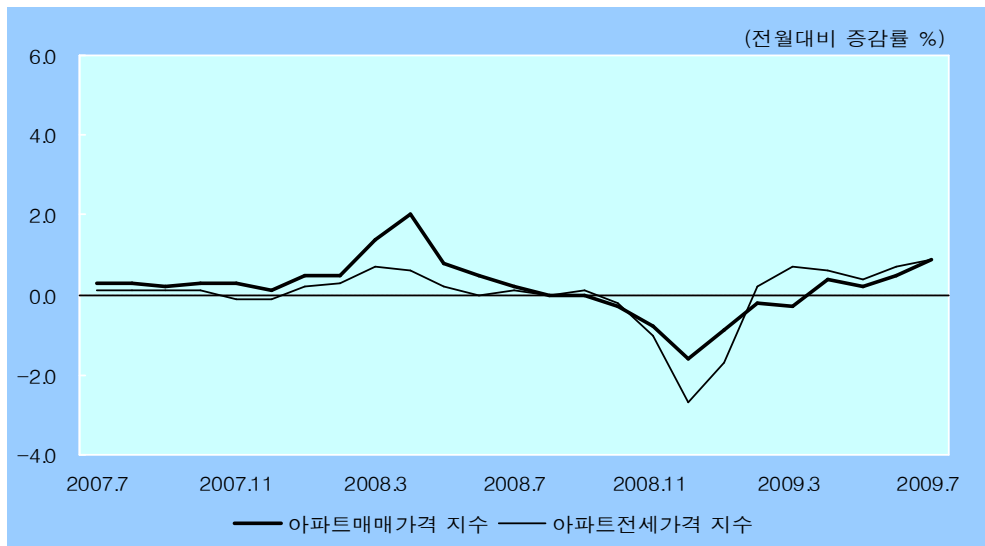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과 동일한 수준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38.9%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냄
(4월 38.7% → 5월 38.8% → 6월 38.9% → 7월 38.9%)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7월 전국 평균 52.8%보다 13.9%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 전월(13.8%p)보다 소폭 상승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1.6%, 강남 36.6%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5.0%p이며 지난 달(5.0%p)과 동일한 수준.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단기시장금리 사상최저 수준에서 안정세 지속

금리

- 단기시장금리 사상최저 수준에서 안정세 지속
 - CD금리는 2.4%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CP금리는 발행수요 저조 등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경신
- 장기시장금리 중순 이후 큰 폭 반등
 - 국고채(3년) 금리는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으로 상당 폭 하락하였으나 국내외 기업실적 및 경기지표 호전의 영향으로 급반등
 - 회사채는 금리메리트의 저하,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상승요인으로 가세 하여 더 큰 폭으로 상승

주가

- KOSPI 지수 7월 중순 이후 급등
 - 5월 이후 1,350~1,440p 사이에서 조정양상을 보이던 코스피지수는 7월 중순 이후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확산 및 국내 기업실적 호전 등을 배경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크게 확대되면서 급등
(08년 10.24. 939p → 12월말 1,124p → 09년 6월말 1,390p → 7월말 1,557p → 8.7. 1,576p)
- 7월중 외국인 투자자 사상 최대 규모 순매수
 - 외국인 투자자는 7월 중 사상 최대 규모로 국내주식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투자자는 차익 실현 등으로 큰 폭의 순매도로 전환
외국인투자자: 4월 4.1조원 → 5월 4.1조원 → 6월 2.3조원 → 7월 6.0조원
개인투자자 : 4월 1.0조원 → 5월 2.1조원 → 6월 1.8조원 → 7월 -3.8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금 리	국고채(3년)	5.8	3.69	3.76	3.83	4.09	4.09	0.00
	CD(91일물)	5.68	2.45	2.42	2.41	2.41	2.41	0.00
	콜금리(1일)	4.98	1.77	1.80	1.91	1.93	1.93	0.00
	장단기 금리차 ¹⁾	0.12	1.24	1.34	1.42	1.68	1.68	0.00
주 가	KOSPI	1,569.60	1,140.45	1,322.10	1,400.50	1,395.24	1460.03	64.79
	KOSDAQ	536.92	390.98	484.22	533.82	516.39	496.39	-20.00
환율 (₩/US\$)	1018.18	1,453.35	1,336.28	1,255.62	1,262.28	1,261.96	-0.32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 축소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LTV 규제 강화조치(7.7일) 이전 차입 신청분 취급 등으로 3조원대의 높은 증가세 지속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앞 학자금대출채권 양도 등에 기인하여 감소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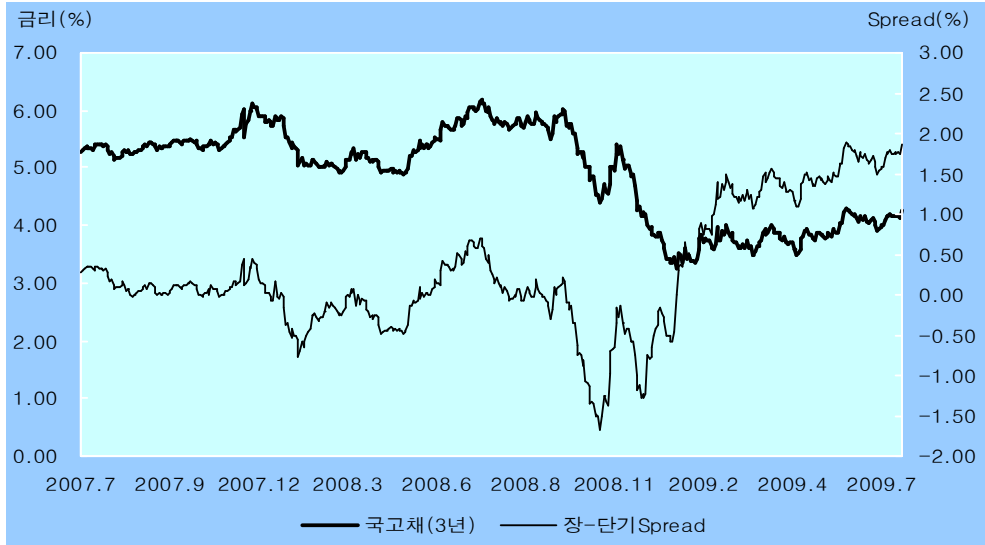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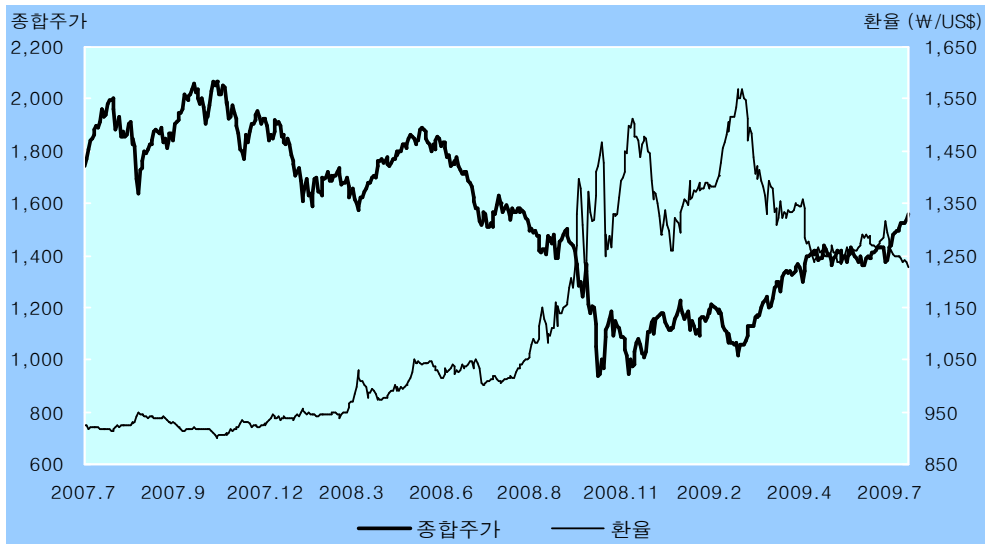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월말잔액		전월대비 증감률
		연중	3월	4월	5월	6월	7월	2009년	
	6월		7월	6월	7월	6월	7월	6월	7월
가계대출 ¹⁾	25.0	1.9	1.1	2.8	4.0	2.6	399.5	402.2	0.68
주택담보대출 ²⁾	18.1	2.5	1.2	2.4	3.5	3.4	254.4	257.8	1.34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6.8	-0.6	0.1	0.5	0.5	-0.7	143.8	144.1	0.21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6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6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34조 1,330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 7,544억원 (0.47%) 증가
- 6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2조 8,434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4,090억원 (0.08%)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전월대비
		6월	3월	4월	5월	6월	증감액	증감률
전국	예금은행	870,377.10	934,597.3	940,529.8	943,796.4	947,207.9	3,411.5	0.36
	비은행기관	268,896.40	282,439.1	283,248.5	284,582.2	286,925.1	2,342.9	0.82
	합계	1,139,273.50	1,217,036.4	1,223,778.3	1,228,378.6	1,234,133.0	5,754.4	0.47
서울	예금은행	378,204.30	416,295.3	416,976.7	417,257.8	416,976.6	-281.2	-0.07
	비은행기관	81,900.30	85,148.7	84,909.1	85,176.6	85,866.8	690.2	0.81
	합계	460,104.60	501,444.0	501,885.8	502,434.4	502,843.4	409.0	0.08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6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전월대비 하락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은 지난달에 이어 하락세 지속(4월 90.2% → 5월 89.9% → 6월 89.2%)
- 서울의 6월 중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예대율(총대출잔액/총예수금잔액)은 62.2%를 나타내어 전월대비 하락(4월 63.4% → 5월 62.9% → 6월 62.2%)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6월	3월	4월	5월	6월	증감
전국	88.3	90.1	90.2	89.9	89.2	-0.7
서울	60.4	63.6	63.4	62.9	62.2	-0.7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업·동·향 |

6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큰 폭 증가

 - 6월 전국의 신설법인은 5,393개로 전년동월대비 15.7%(731개), 전월비로는 33.9%(1,364개) 각각 증가하여 1개월만에 동시 상승으로 17개 시도별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
 - 이는 비록 최근의 경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IMF, 한은 등의 경제성장률 전면 상향조정 등)과 최저자본금제 폐지(5.28일 시행) 등의 정책적 효과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
- 서울 전년동월대비 신설법인 증가

 - 6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019개로 전월대비 41.6%(593개)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24.2%(393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 모든 분야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6월 중 전반적인 상승세 가운데 모든 분야의 신설법인 수가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20.9%(267개) 증가, 제조업 61.4%(121개), 건설 및 설비업 1.3%(2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6월	3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662	4,564	5,038	4,029	5,393	1,364	33.9	731	15.7
서울	1,626	1,559	1,866	1,426	2,019	593	41.6	393	24.2
서비스업	1,279	1,231	1,493	1,127	1,546	419	37.2	267	20.9
제조업	197	232	248	203	318	115	56.7	121	61.4
건설 및 설비업	149	87	111	91	151	60	65.9	2	1.3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보다 하락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하락

- 6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조정후)은 0.02%로 전월대비 0.02%p 하락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25개로 전월(151개)보다 26개 줄어들어 6개월 연속 감소하며 통계 편제(1990.1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보다 하락

- 6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보다 0.02%p 하락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51개로 전월대비 1.9%(1개) 감소, 전년동월비로는 19.0%(12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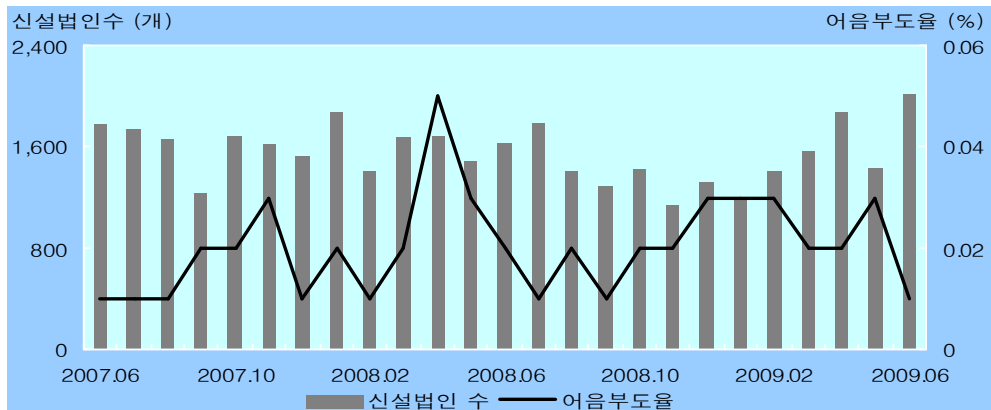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6월	3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5	0.03	0.04	0.02	-0.02	-50.0	-0.01	-33.3
	부도업체 수	191	223	219	151	125	-26	-17.2	-66	-34.6
서울	어음부도율	0.02	0.02	0.02	0.03	0.01	-0.02	-66.7	-0.01	-50.0
	부도업체 수	63	92	84	52	51	-1	-1.9	-12	-19.0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소액지원 신용보증 활성화

■ 신용보증 건당 평균금액의 감소

- 7월중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10,944건, 190,971백만원으로 전월 대비 건수 기준 0.5%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금액 기준 9.3%의 감소율을 기록함
- 정책 목적에 따라 시행중인 소액의 「금융소의 자영업자 특례보증」 공급 확대로 신용보증 건당평균금액은 감소세를 보임
- 한편, 전년 동월 시점과 비교시 건수 기준 108.1%, 금액 기준 175.0%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4개월 연속 월간신용보증 10,000건 이상을 달성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5,259	8,873	15,828	10,915	10,894	10,944	50	0.5	5,685	108.1
금액	69,442	178,725	281,592	207,449	210,545	190,971	-19,574	-9.3	121,529	175.0
건당평균금액	13.2	20.1	17.8	19.0	19.3	17.4	-1.9	-10.9	4.2	31.8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도 · 소매업 비중의 확대

- 7월 기준 「업종별 신용보증 변동 현황」의 특징은 전월대비 도 · 소매업 비중이 건수기준 (34.7% → 37.2%) 및 금액기준 (34.3% → 36.8%) 모두 2.5%p 증가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제조업과 음식 · 숙박업 합계는 전월대비 건수 및 금액기준 각각 2.1%p(25.7% → 23.6%), 1.1%p(26.6% → 25.5%) 비중 감소세를 나타냄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746	4,076	1,841	3,088	1,193	10,944
비율	6.8	37.2	16.8	28.2	11.0	100
금액	15,281	70,217	33,336	51,407	20,730	190,971
비율	8.0	36.8	17.5	26.9	10.8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지원 비율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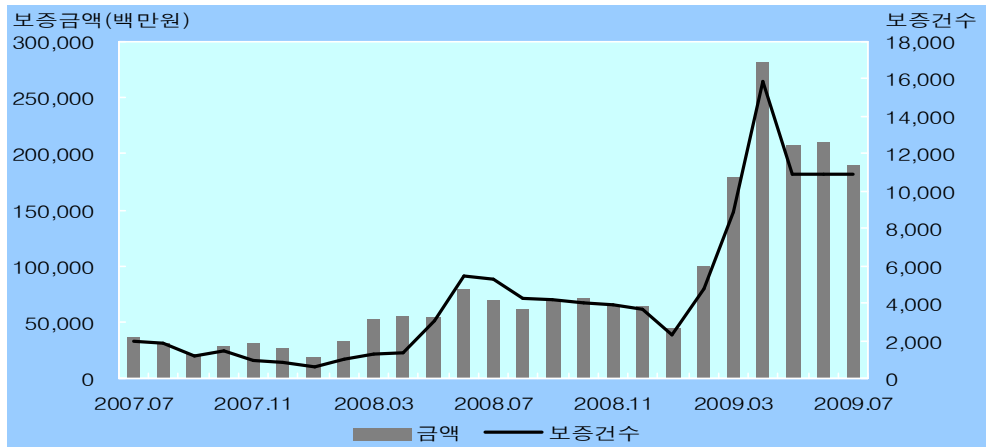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7월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차지비율이 건수기준 97.4%, 금액기준 94.4%로 집계됨
- 이는 전월대비 건수기준 0.1%p, 금액기준 0.3%p 감소한 수치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대상으로 여전히 소상공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9.05	2009.06	2009.07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10,689	10,625	10,663	38
	비율	97.9	97.5	97.4	-0.1
	금액	196,895	199,488	180,217	-19,271
	비율	95.0	94.7	94.4	-0.3
소기업	건수	196	241	242	1
	비율	1.8	2.2	2.2	0
	금액	7,970	8,850	8,203	647
	비율	3.8	4.2	4.3	0.1
중기업	건수	30	28	39	11
	비율	0.3	0.3	0.4	0.1
	금액	2,584	2,205	2,553	348
	비율	1.2	1.1	1.3	0.2
합계	건수	10,915	10,894	10,944	50
	비율	100	100	100	0
	금액	207,449	210,545	190,971	-19,574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수출 전년동월 대비 소폭 증가

- 전국 수출입 6개월 연속 무역 흑자 달성
 - 7월 전국의 수출입 무역수지는 44.1억달러를 기록, 2009년 6월이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달 흑자폭보다 28.6억달러 감소
 - 교역액(수출액+수입액)도 5월의 일시 감소를 제외하고 지난달보다 2.8% 증가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은 교역량을 보였음
- 전국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대비 감소
 - 7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1.8% 감소한 320.2억달러, 수입은 35.7% 감소한 276.1억달러를 기록
 - 수출은 지난해 수출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식료 및 직접소비재 일부 품목과 가전제품, 금 등을 제외하고 선박 등 대다수 품목이 감소하여 지난해 7월 대비 89.4억달러 감소하였고 수입도 유가, 원자재가 하락 등으로 153.4억달러 감소
- 서울의 수출 전년동월 대비 소폭 증가
 - 7월 서울의 수출은 30.9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하였고, 수입은 65.8억달러로 21.2% 감소
 - 전월대비로는 서울의 수출과 수입 각각 23.4%, 9.6% 증가
- 7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편직물,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편직물이 215,015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합성수지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713,911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컴퓨터,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석유제품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조각품이고, 수입의 경우 플라스틱제품으로 나타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8년 7월	2009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3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40,961	28,068	30,418	28,148	32,634	32,023	-8,938	-21.8	-611	-1.9
	수입	42,952	23,782	24,630	23,088	25,364	27,617	-15,335	-35.7	2,253	8.9
서울	수출	3,088	2,586	2,609	2,229	2,510	3,098	10	0.3	588	23.4
	수입	8,351	5,555	6,282	5,517	6,002	6,581	-1,770	-21.2	579	9.6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7월		2009년 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편직물	214,608	32.1	215,015	0.2
2	자동차부품	138,950	39.4	174,752	25.8
3	반도체	192,894	-7.7	172,530	-10.6
4	합성수지	133,744	30.5	148,298	10.9
5	컴퓨터	145,174	68.2	144,805	-0.3
6	무선통신기기	82,269	-1.4	127,950	55.5
7	고무제품	132,657	23.8	127,891	-3.6
8	조각품	1,229	296	110,267	8872.9
9	의류	117,340	26.5	95,757	-18.4
10	자동차	64,995	10.5	92,783	42.8
합계		3,087,743	35.6	3,097,515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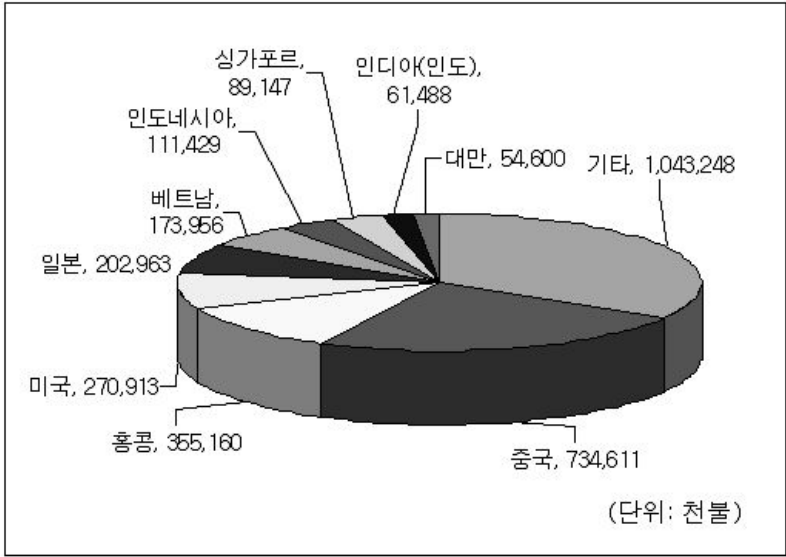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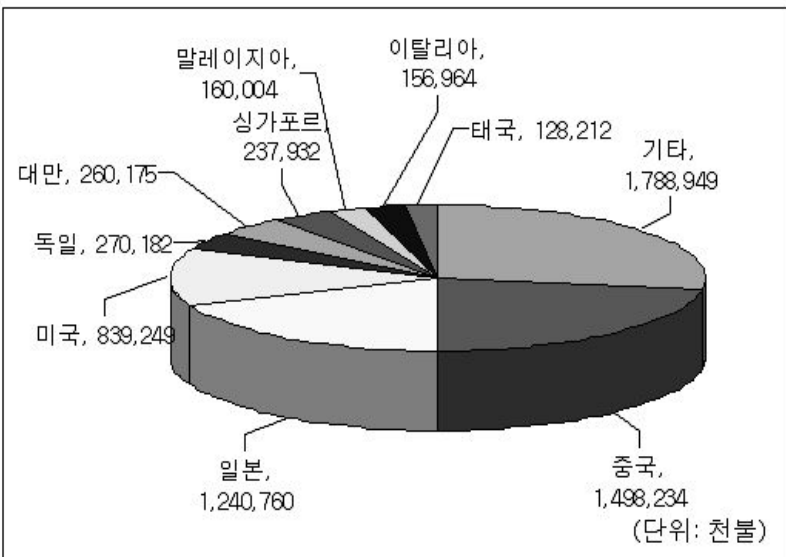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7월		2009년 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779,083	94.9	713,911	-8.4
2	컴퓨터	441,159	-25.3	408,825	-7.3
3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35,168	-23.1	288,252	113.3
4	석유제품	332,615	143.5	279,831	-15.9
5	플라스틱제품	88,318	19	210,585	138.4
6	의류	277,819	24.6	206,139	-25.8
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24,005	249.6	169,620	36.8
8	무선통신기기	170,948	83.3	148,370	-13.2
9	농약및의약품	141,322	28.3	141,279	-
10	정밀화학원료	125,637	39	123,401	-1.8
합계		8,350,725	49	6,580,661	-21.2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